

Daniel: 15

Title: “Nebuchadnezzar's second dream (part 2): Sermon Notes”

Scripture: Daniel 4:10-18

Date preached: September 15th 2024

<p>Scripture: Daniel 4:10-18</p> <p>10 “These <i>were</i> the visions of my head <i>while</i> on my bed:</p> <p>I was looking, and behold, A tree in the midst of the earth, And its height was great.</p> <p>11 The tree grew and became strong; Its height reached to the heavens, And it could be seen to the ends of all the earth.</p> <p>12 Its leaves <i>were</i> lovely, Its fruit abundant, And in it <i>was</i> food for all. The beasts of the field found shade under it, The birds of the heavens dwelt in its branches, And all flesh was fed from it.</p> <p>13 “I saw in the visions of my head <i>while</i> on my bed, and there was a watcher, a holy one, coming down from heaven. 14 He cried aloud and said thus:</p> <p>‘Chop down the tree and cut off its branches, Strip off its leaves and scatter its fruit. Let the beasts get out from under it, And the birds from its branches.</p> <p>15 Nevertheless leave the stump and roots in the earth, <i>Bound</i> with a band of iron and bronze, In the tender grass of the field. Let it be wet with the dew of heaven, And <i>let</i> him graze with the beasts On the grass of the earth.</p> <p>16 Let his heart be changed from <i>that of</i> a man, Let him be given the heart of a beast, And let seven times pass over him.</p> <p>17 ‘This decision <i>is</i> by the decree of the watchers, And the sentence by the word of the holy ones, In order that the living may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 Gives it to whomever He will, And sets over it the lowest of men.’</p> <p>18 “This dream I, King Nebuchadnezzar, have seen. Now you, Belteshazzar, declare its interpretation, since all the wise <i>men</i> of my kingdom are not able to make known to me the interpretation; but you <i>are</i> able, for the Spirit of the Holy God <i>is</i> in you.”</p> <p>10 □□□□□□ □□□ □ □□□□□□ .</p> <p>□□□□ □□ □□□□ □ □□□□□□□ . 11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12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었다.</p> <p>13 “□□□ □□□□ □□ □ □□□ □□ □□□□ □ □□□□□ 14 □ □□□ □□□ □□□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찍고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흩어 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 □□□.</p> <p>15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그가 하늘의 이슬을 맞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16 그가 7 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17 이것은 순찰하는 천사들이 선언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18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왕이 꾸는 꿈이다. 벨트사살야, 이제 너는 이 꿈을 해몽하라. 이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너는 이 꿈을 풀어낼 수가 있다.”</p>
--

Before we look at today's portion of scripture let's take a moment to remind ourselves of where we are in the story.

Last week we looked at the opening to chapter 4. As I pointed out to you chapter 4 is a unique part of scripture. This is because what we are reading here is king Nebuchadnezzar's personal record of what happened. This is his eyewitness testimony (autobiographical account) of what he experienced. This testimony was either dictated to a scribe, or most likely written down by the king himself. This letter was to be sent out to all the provinces of his empire for everyone to read. The king had a particular purpose in mind for recording his experiences. He wanted everyone that he ruled over to know what the Most High God had done in his life. It was simply too astounding to keep hidden from the world. To put it simply the king could not keep quiet about what God had done,

I may have told you before the story about the father of one of my school friends. He was a very nice, friendly and outgoing man. A talented musician and singer who was very active in the local community. He was respected and well regarded by all. I visited and stayed at my friend's house on many occasions and often spent time chatting with, and interacting with his father. Unfortunately this man died quite young. Shortly after his death one of his friends created a webpage as a kind of memorial to him. It contained all the things you'd expect. It spoke of his hobbies, his interests and his many achievements. However I remember being quite surprised when I read it to discover that apparently he was a deeply committed Christian. Actually surprised is a too mild a word, in fact I was stunned to learn that his Christian faith was very important to him.

Why you might ask was I so stunned. Well, my surprise stemmed from the fact that in all the years I had known and interacted with him he had never once spoken of, or indicated in any way that he was a Christian. I'd never seen him pray, read a bible or even speak on a faith related issue. Now of course we do not know the true nature of people's hearts. It's certainly not our place to judge. That is something known only to God. So he may well have been a devoted, albeit quiet follower of Christ. He may have loved the Lord Jesus Christ with a fervent inner passion. But I do wonder a little about the whole idea of being a silent, or secret Christian. Something about that whole concept seems amiss to me. Doesn't it seem to go against what the bible tells us. Aren't we commanded to go into the world and tell people the good news?

**And He said to them,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Mark 16:15)**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in possession of the most amazing and glorious news. Why would we want to keep it a secret and not share it? King Nebuchadnezzar certainly didn't want to keep it a secret. He wanted to share his news with all the world.

He begins his account by outlining his purpose in writing. He is writing in order to declare the wonders of the Most High God. He then goes on to say that whilst he was relaxing in the comfort of his palace he experienced a strange and puzzling dream. This is of course not the first time this has occurred. But what is not really made clear in the text is just how much time has passed. It's easy for us to read through chapters and books of the bible and think that the events are happening in close sequential ord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As I said last time the events of chapter 4 probably took place when the king was an old man. Nearing the end of his life and around 30 years after the last dream and the fiery furnace incident.

As with the first dream Nebuchadnezzar seeks insight and understanding from his wise men. He calls all of his astrologers, magicians, soothsayers and occultists together. They are unable to interpret the dream. Finally, Daniel, the chief of the magicians arrives at the palace. Nebuchadnezzar acknowledges that Daniel is special. Unlike his other wise and learned men Daniel has the Spirit of God inside him. This means that the king is fully confident that he can successfully

interpret the dream.

Today account consists of the king explaining in detail the various elements of his dream.

오늘의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4 장의 서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4 장은 성경에서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쓴 개인적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간증(자서전적 설명)입니다. 이 증언은 사기꾼에게 구술했거나 왕이 직접 기록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서신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의 제국의 모든 지방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왕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짐짐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학교 친구 중 한 명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한 재능 있는 음악가이자 가수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하고 머물렀으며, 종종 그의 아버지와 대화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추모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취미, 관심사, 그리고 그가 이룬 일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 관한 글을 읽고 그가 헌신적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꽤 놀랐었습니다. 놀랐다는 표현은 너무 온건한 표현이고,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랐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토록 놀란 이유는 제가 그를 알고 지낸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거나 암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신앙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그리스도에 대해 침묵했지만 헌신적인 크리스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하거나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에 대해 약간 회의적입니다. 예수를 조용히 믿는다는 개념이 뭔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비밀로 간직하고 나누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비밀스럽게 지키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궁전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동안 이상하고 기이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니 그의 첫 번째 꿈 사건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각각의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4 장의 사건은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 왕이 나아가 들었을 때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난 번의 꿈 사건과 불타는 용광로 사건이 있는 지 약 30 년 정도 흐른 후에 그의 삶이 끝날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꿈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현자들에게 조언과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는 모든 점성술사, 마술사, 점술가, 신비주의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은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현자들의 우두머리인 다니엘이 궁전

에 도착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특별하다고 인정합니다. 다른 현지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그의 꿈을 성공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왕이 확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왕이 그의 꿈에서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0 “These were the visions of my head while on my bed:

**I was looking, and behold,
A tree in the midst of the earth,
And its height was great.**

The king then begins to describe his dream. As he lay on his bed in a state of dreaming these are the things he saw. The main component of the dream was a massive tree. Now we are accustomed to being surrounded by many trees. But this was not the case for those living in many parts of the middle eas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many parts of Palestine and Babylon meant that trees were not a common feature in the landscape. As a result of this trees were seen as being rare and precious. For this reason they came to be considered as sacred and special. Groves of trees were often thought to be the dwelling places of the gods.

The tree that Nebuchadnezzar saw stood in the midst or at the centre of the earth. This speaks to the importance of this tree. It is not one of many similar type trees.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influential tree in this dream landscape. The image we are to conjure in our minds here is of a massive tree dominating its environment.

Do you have a favourite tree?

A tree that you find to be particularly majestic or arresting in some way. I was interested to discover as I researched this topic that many countries officially designate a national tree. How you might ask is this one particular tree chosen? Well, perhaps this is the tree that most readily comes to mind when people are asked about a representative tree. Or maybe this tree is the one the people think is the most beautiful tree in their country. Maybe the tree, its wood or fruit have special cultural relevance. There may then be many reasons why a particular tree is chosen.

10 □□□□□□ □□□ □ □□□□

□□□□ □□ □□□□ □ □□□□□□□□□ .

왕은 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꿈 속에서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꿈에서 주된 요소는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과 바빌론의 많은 지역에서는 환경의 특성상 나무들이 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희귀하고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무는 신성하고 특별했습니다. □□□□□□ □□ □□ □□□□ □□ □□□□□□

느부갓네살이 본 나무는 땅의 한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무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비슷한 종류의 나무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꿈 속의 풍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나무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주변 환경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마음 속에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좋아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특별히 웅장하면서 눈길을 끄는 나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국가 나무를 지정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각각의 나라는 어떤 나무를 국가 나무로 지정할까요? 글쎄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나무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무일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하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의 목재나 열매가 특별한 문화적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마다 특정 나무가 선택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All of those trees were beautiful or impressive in their own way. So which tree might have appealed

symbolically for something else. I'm sure you've already guessed that the tree represents the king, and the Babylonian empire over which he is the head. So the important take-away at this point in the dream is that this tree is impressive, well known and highly revered. It occupies a place or position of prominence.

As we have noted before king Nebuchadnezzar was an extremely successful ruler. Under his guidance and leadership the empire of Babylon had expanded greatly. This means that at this time in world history it was the dominant empire. All the world, or at least all the world that was aware of Babylon knew of its strength and power. Other empires had existed before Babylon but none of them had attained the magnitude or splendour of Babylon.

11 그 나무는 점점 크게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서 그 나무의 크기와 위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은 하이퍼리온 Hyperion 이고 높이가 116m, 연령은 600~800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일부 회의론자들은 등그런 지구에서는 물체가 아무리 키가 커도 지구 전체에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평가들은 우리가 여기서 읽고 있는 내용이 꿈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왕이 꾸는 꿈이므로 현실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꿈은 종종 현실을 뒤집고 왜곡합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한 순간 정글을 달리다가 다음 순간에는 갑자기 소피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나무 자체를 넘어서 그것이 다른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무가 인상적이고 잘 알려졌으며 매우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성공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통치와 리더십 아래 바빌론 제국은 크게 확장했습니다. 즉, 그 당시 세계 역사에서 바빌론은 지배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또는 적어도 바빌론 제국에 대해 알았던 세계는 그 힘과 권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제국도 바빌론의 규모나 화려함에 미치지 못합니다.

**12 Its leaves were lovely,
Its fruit abundant,
And in it was food for all.
The beasts of the field found shade under it,
The birds of the heavens dwelt in its branches,
And all flesh was fed from it.**

We are told here that this tree was rich and bountiful. It was not only beautiful in appearance but also highly productive and useful. The fruit it produced provided food. The shade it offered was good for animals (the beasts) and its branches were a safe refuge for the birds. As the Babylonian empire grew it embraced a whole range of people groups represented here by the “beasts” and the “birds.” All of these diverse people groups fell under the Babylonian umbrella and were able to flourish and prosper. This is the ultimate aim for all kings (rulers), or at least it ought to be. They should want their people to be happy, well fed and as a result to flourish. When this objective is achieved the population is content and productive and things run smoothly.

As we just noted the tree represented the king and the empire over which he ruled. So let us think about how this description applies to Babylon. The city of Babylon and by extension the whole Babylonian empire was well managed and highly productive. It is located as you can see on the map along the fertile crescent. The rich and well watered soil in this region meant that a wide range of crops such as wheat, rye and barley, and fruits like grapes, figs and olives could be grown. This is

what is meant here when it tells us that **all flesh was fed from it**. There was plenty of food to go around and no one need go hungry. Other empires throughout history have not always enjoyed this kind of food security. Egypt is a case in point. They were prone to famines which meant periodic instability. This was not a concern for Babylon.

We might also consider the city of Babylon itself. In the ancient world the great fear of any city was being besieged. Surrounded by an enemy and being unable to leave or replenish supplies. Sieges may last for weeks, months or even years. The siege of Philadelphia in Asia Minor lasted for 12 years! (1378 to 1390 BC). Babylon however was well equipped for such an eventuality.

They had prepared for the worst by ensuring that they were not likely to run out of food and water. This was achieved by diverting the Euphrates river so that it ran through the city. The king had also created vast storehouses that could house enough grain to last for many months. Even better was the fact that wheat fields were planted inside the city walls. So the Babylonians felt quite confident that their city would not fall to an enemy trying to besiege it.

This security perhaps led to a certain degree of arrogance or pride. This was certainly the case for king Nebuchadnezzar.

The dream which up until this point had been bright and positive is about to take a dark turn. Let us continue.

12 그 앞사루는 이름답고 그 가지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으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과일을 먹었다

여기서 이 나무가 살하고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풍성하고 유용했습니다.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동물(짐승들)들이 쉬고 그 가지에는 새들의 안전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성장하면서 "짐승들"과 "새"로 표현된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바빌론 제국에 속했고 발전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왕(통치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적어도 그래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이 행복하고, 잘 먹고, 그 결과 번성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국민들이 만족하고 번영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나무는 왕과 그가 통치하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묘사가 바빌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빌론 도시와 바빌론 제국 전체는 잘 관리되었고 생산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비옥한 이 지역의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밀, 호밀, 보리와 같은 다양한 작물과 포도, 무화과, 올리브와 같은 과일을 생산했습니다. **온 세상 나무의 그 과일을 먹었다**는 표현이 그 뜻입니다. 먹을 것이 충분했고 아무도 배고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제국들이 항상 이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않았습니까? 이집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주기적으로 나라가 불안정했습니다. 바빌론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바빌론 도시 자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어느 도시든지 포위당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적에게 포위당하면 도시를 떠날 수도 없거나 보급품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포위는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필라델피아 포위는 12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기원전 1378 년~1390 년) 그러나

그들은 식량과 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려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게 하였습니다. 왕은 또한 몇 달 동안 유지할 만큼 충분한 식량을 보관할 수 있는 거대한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도시 성벽 안에 밀밭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인들은 그들의 도시가 포위하려는 적에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안보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아마도 오만함이나 자만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확실히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어로 "iyer"이고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며 문자 그대로 "감사하기 위해 깨어 있는 stays awake in order to keep watch" □□□□□□□□. 느부갓네살의 세계에서 감사자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중요한 심부름을 위해 파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메신저 또는 소식 전달자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천상의 세계가 인간 세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에 하나님 또는 신들은 언제든지 메시지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천상의 존재들(감사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사가 종종 하나님의 메신저로 활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angelos 가 메신저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영어 단어 angel 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감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존재를 거룩한 존재 holy one, 즉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합니다.

이 감사자(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앞으로 다가올 피해와 파괴에 대한 것입니다. □□□□□□□□, 가지가 잘리고 열매가 흩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상 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제공하거나, □□□□□□□□의 피난처가 되거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그루터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15 Nevertheless leave the stump and roots in the earth,
Bound with a band of iron and bronze,
In the tender grass of the field.
Let it be wet with the dew of heaven,
And let him graze with the beasts
On the grass of the earth.**

The tree is to be chopped down but note very carefully, its not to be completely destroyed.

The stump is to be left protruding up from the earth, and the roots left anchoring the stump to the soil. This detail will prove to be important later as the dream unfolds. This is because whilst it may be that all the benefits the tree provides are being removed the tree itself is not being killed. Because its roots still exist it has the potential to grow back. If you've ever done any weeding in the garden you will know this to be true. If you remove the top of the weed but leave the roots they will soon grow back. So what does all of this mean?

Well, this kind of imagery regarding a tree stump is used in other Scriptures to depict something ruined, or defeated, which yet survives and returns to a state of growth. Let me read to you from the prophet Isaiah (6:13).

**But yet a tenth will be in it,
And will return and be for consuming,
As a terebinth tree or as an oak,
Whose stump remains when it is cut down.
So the holy seed shall be its stump."**

We are further told that the stump is to be bound in a band of iron and bronze. The precise meaning or significance of this detail is hard to determine. It may be linked to the idea of preservation and protection. Imagine this stump exposed to the elements. Over time it may be damaged or destroyed. So perhaps this binding is protecting the tree from the elements, water that may rot it, or the baking sun that may split it? Alternatively we might think of this binding being intended to preserve the stump from people who might seek to destroy it? The writer then is encouraging us to now make the shift from tree to king Nebuchadnezzar himself. The king is soon going to lose everything, but still remain alive with the potential to "grow back" in the future. We see here as I just noted the change from the tree being representative of an impersonal object to becoming a person in the form of the king himself.

Let **it** (the tree) be wet with the dew of heaven,
And let **him** (king Nebuchadnezzar) graze with the beasts

of time.”

The Aramaic word translated "periods of time" (*'iddanin*) is indefinite, meaning that it does not indicate how long these periods of time are. Some commentators have suggested that the meaning may not actually be tied to an exact length of time. They maintain that seven is used to imply a period of completeness. Seven after all is the biblical number for completeness or perfection. Others argue that a specific period of time is in view.

So as a result various periods of time have been suggested. Was it seven hours or days? I think we can easily dismiss these suggestions. This is too short a period of time for the changes described occurring to Nebuchadnezzar to take place. Seven months again seems like too short a time. We read that Nebuchadnezzar's hair and nails grew long (Dan 4:33). Now obviously the idea of long hair is subjective, but hair doesn't really get to be “long” in seven months. Others have proposed that seven seasons are in view here. This would mean we are talking about a year and three quarters. However the most common, and the best answer for how long the king remained in his state of mental incapacity is seven years.

There is a very good reason for us accepting this period of time. The reason is that this is what the bible teaches. This is one of the key principles of biblical hermeneutics. We should always use the bible to interpret itself. In the Book of Daniel “time” when used to refer to chronological periods means **a year**. Let me read Daniel chapter 7 verse 25.

**He shall speak pompous words against the Most High,
Shall persecut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And shall intend to change times and law.
Then the saints shall be given into his hand
For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In Daniel chapter 7 the prophet records a night vision that God gave him concerning four world empires, symbolized as four beasts. The fourth beast represents a revival of the Roman empire an event that occurs during the time of the tribulation. A period we know to be two periods of three and a half years, or seven years in total. In the first three and a half years there will arise a powerful leader who will seize control. He is the figure in view in this verse. This figure will present himself as Israel's friend, at first, and formulate a very desirable peace treaty. However after a specific period of time he will break the treaty and put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How long will he wait before breaking the treaty?

Well, allow m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final line, **For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A “time” as I just pointed out in Daniel represents one year. So **time** (1 year) + **and times** (2 years) + **half a time** (6 months) = three and a half years or 1260 days, or forty two months. This same formula is also repeated in Daniel chapter 12 verse 7. So when we use scripture to interpret scripture we are not left having to speculate or guess. We can easily discover our answer. Nebuchadnezzar was incapacitated for a period of seven years.

Let us read on.

16 그가 7 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꿈의 이 부분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쯤 왕은 그 꿈의 의미가 단순히 바빌론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꿈에서 제시된 미래는 매우 두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간성을 잃고 짐승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곧 확인하겠지만 이 구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곧 심각한 정신 질환을 겪을 것임을 예언합니다(다니엘 4:24-25). 왕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처럼 쇠약한 상태로 지내야 할까요? 여기서 **일곱 때** seven times, 더 정확히는 "일곱 기간 seven periods of time"이라는 다소 신비로운 문구가 나옵니다.

"때 기간 periods of time"으로 번역된 아람어 (*'iddanin*)는 불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그 의미

가 실제로 특정 기간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일곱이 완전 completeness 을 의미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합니다. 7 은 완전함이나 완벽함을 상징하는 성경적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특정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간이 제안되었습니다. 일곱 때 seven times 가 일곱 시간 아니면 칠 일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제안은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다가올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일곱 달도 너무 짧은 기간처럼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길게 자랐습니다(단 4:33). 긴 머리카락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주관적이지만 실제로 일곱 달 만에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곱 계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1 년 9 개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왕이 7 년 동안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상식적이고 적절합니다.

7 년의 기간이 옳다는 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사용하여 성경 자체를 해석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때 time"가 연대적 기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될 때에는 **1 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7 장 25 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거만한 말을 할 것이요

자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이나

다니엘 7 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을 기록하는데, 이는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네 세계 제국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의 부흥을 상징하는데, 이는 환난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환난 기간은 두 번의 3 년 반 기간 즉 총 7 년입니다. 처음 3 년 반 동안에 모든 것을 통제할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위 구절(다니엘 7:25)에서 언급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친구로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매우 비람직한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그는 조약을 깨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 $\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square$. 그는 조약을 깨기 전에 얼마나 기다릴까요?

마지막 줄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다니엘서에서 "한 때 a time"는 1 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한 때(1 년) + 두 때(2 년) + 반 때(6 개월) = 3 년 반** 또는 1260 일 또는 42 개월입니다. 이와 동일한 공식이 다니엘 12 장 7 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때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7 년 동안 무능력했습니다.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17 'This decision is by the decree of the watchers,
And the sentence by the word of the holy ones,
In order that the living may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
Gives it to whomever He will,
And sets over it the lowest of men.'**

The account of the dream concludes in an interesting way. We are told that the decision to bring this sentence or judgment upon Nebuchadnezzar was the decree of the watchers. Now we have to confess that the exact management of the heavenly realm remains an impenetrable mystery. Many over the years have devised complex theories to explain how things work in the spiritual realm. But the truth is that we are not told in the bible how God has ordered things. This means we will have to be content not knowing all we might like to know. It appears from this verse that there is a group of angelic beings known as the watchers who are given a degree of power and authority by God.

Alternatively, and this is reflected in some translations the watchers here are only giving the message and reporting on the decree passed by God. Either way the important take away for us is that God is always the one in ultimate control. The watchers may be given a modicum of autonomy, but they always act under the authority and will of God.

We then move on to an explan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decree. We learn why it is that God is going to humble Nebuchadnezzar in this way.

It is to serve an educational purpose. Through it God intends to correct Nebuchadnezzar's attitude and behaviour. This same principle applies today when we punish people. We are not, I hope punishing them simply for punishments sake. We are intending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is person in order that they might be a more useful member of society. So God is going to teach the king a lesson on humility.

As we have seen throughout Daniel the king is a prideful man. He believed that he was himself a god. He possessed the power and authority of a god. He believed that his empires success, and his own personal accomplishments were a result of his own efforts. He was about to receive a very rude lesson. The lesson he, and all who witnessed or read about this event were to learn is as follows.

The Most High God is sovereign over all the affairs of humankind.

It is God who plac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and authority. It is God ultimately who appoints kings, prime ministers and presidents. He determines who will hold the high offices of state. This is affirmed to us in the book of Romans.

Let every soul be subjec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and the authorities that exist are appointed by God. (Rom 13:1)

Equally it is God who removes them. It is God who determines when an ruler or when an empire's time is over, and it when it will fall or be conquered. Simply put it's all in God's hands.

Nebuchadnezzar's way of thinking is still sadly prevalent today. We should be careful lest we fall into the same foolish way of thinking. Of course, we are not the ruler of a vast empire but his attitude is easy enough to mimic. Don't we all at times think too highly of ourselves and the things we have done. Don't we all at times think that our work in the church, or in the local community is only a success because its us doing it. Don't we all at times get puffed up and believe that if we were to step down then the whole church would crumble. That is just foolish thinking. God does not need us. He does not need the “mighty” to accomplish His will.

Let us conclude our study today by looking at verse 18.

17 이것은 순찰하는 천사들이 선안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것이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하시다'

꿈 이야기는 흥미롭게 끝이 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심판을 내리기로 한 결정은 감시자들의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영역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기 위해 복잡한 이론을 고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감시자로 알려진 천사 집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권능과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일부 번역본에서 반영된 것처럼 이 감시자들은 단지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내린 명령에 대해 보고할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항상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최소한의 자율권을 받을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 다음 이 명령의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런 식으로 낮추시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thinks exist.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examine Daniel's reaction and response to all this.

18 “이것이 궤 느부갓네살왕이 궤 꿈이다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이 꿈을 해몽하라 이 궤 궤 모든 박사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너는 이 꿈을 풀어낼 수가 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는 여기서 바빌론 이름으로 언급된 다니엘에게 해몽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 세상의 현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주도록 요청받은 유일한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라오가 꿈 때문에 괴로워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도 자혀지들을 모두 불러 해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울 수 없었고 피라오가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창세기 41 장).

우리는 이전에 "현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해했지만 왕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나 적어도 추측했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자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진실을 숨기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그들이 꿈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전에 다니엘이 한 일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다니엘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시어 그의 꿈과 해몽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NKJV에서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번역본은 하나님 God(단수)이 아니라 신들 gods(복수)을 사용합니다. 이는 다신교도인 느부갓네살 왕이 믿기를 다니엘이 많은 신들 중 하나의 영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과 대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comments to make based on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 기초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The danger of pride

King Nebuchadnezzar was a deeply prideful man. He firmly believed that he was a god, or at least as powerful as a god. He maintained that his nations' success was a result of his own brilliance. As we saw he erected an image of himself and demanded that people come and worship him. It's hard to think of any way in which he could be any more prideful.

Pride's great danger stems from its basic proposition that since we are so good and capable we don't need God. We can live independently of Him. Pride encourages us to give ourselves the credit for something that God has accomplished. Pride also takes God's rightful glory and applies it to ourselves. All of these statements regarding pride apply to king Nebuchadnezzar.

In the book of proverbs we read this very familiar and well known verse.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nd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Proverbs 16:18)**

This proverb reminds us that a prideful and haughty spirit puts a person at severe risk of disaster. We know from our lived experience that when we have too much confidence in our own skills or abilities we are often destined to fail. I'm a very modest guitar player. I can strum away in my house

and entertain my family and friends. But imagine if I allowed my pride to run rampant. Imagine if I declared to the world that I'm an amazing guitarist. And as a result I should be headlining a major music festival. Can you imagine the outcome? I'd be booed off the stage if I tried to entertain thousands of paying music fans.

If only Nebuchadnezzar had read this verse from Proverbs and taken it to heart. If only he had repented what misery and suffering he could have avoided.

It's easy to look and detect pride in others. But what about pride in our own lives? Pride is often very subtle. It can sneak in without us noticing. Therefore this proverb applies equally to us. We don't want like Nebuchadnezzar to have to experience a major fall. Let us be aware of pride in our own lives, repent and turn away from this deadly sin.

1. 교만의 위험성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굳게 믿었고, 적어도 신만큼 강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제국이 성공한 이유가 자신의 뛰어난 재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 □□□□□ □□□□□□□□. 이보다 더 교만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교만의 커다란 위험은 자신이 훌륭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기본적인 명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자신의 공으로 돌리게 합니다. 교만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합니다. 교만에 대한 이 모든 진술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적용됩니다.

잠언서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찬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이 잠언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사람을 심각한 재앙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에 너무 자만할 때 종종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기타 연주 실력은 보통 수준입니다. 저는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가족과 친구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만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제가 놀라운 실력을 가진 기타 연주자라고 세상에 선언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하여 제가 중요한 음악 축제의 헤드라이닝을 맡게 된다면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제 기타 실력으로 수천 명의 유료 음악 팬들을 위해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 आयु를 받고 쫓겨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잠언의 이 구절들을 읽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그는 비참함과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교만함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에서 교만함은 어떻습니까? 교만함은 종종 매우 미묘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처럼 큰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치명적인 죄로부터 돌아섭시다.

2 You can't escape forever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Frank Freshwaters. In 1957 the then 21 year old hit and killed a man whilst riding his motorcycle. He was convicted of manslaughter and sentenced to 20 years in jail. In 1959 whilst he was being transferred to Sandusky Honor Farm he managed to escape. Despite an extensive manhunt he was never apprehended. Frank assimilated back into society and effectively disappeared.

We skip ahead now to 1975. In this year he was finally tracked down and discovered to be living in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편 139 편 7 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현실이 이러하데 왜 도망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거나 숨거나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도망치거나 숨으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순종적이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처럼 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